

<누가 전쟁을 원하는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part 2

14

"누가 이 전쟁에 책임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 전쟁의 원인을 모르는 지 모른다, 하지만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확실하다!, 그리고 책임이 있는 자들은 처벌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 러시아인에게 물어보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독일!, 독일이 전쟁 선포를 했다, 그러므로 독일이 전쟁을 촉발한 것이다!". 독일인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우리 독일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거듭 협상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동원령을 먼저 선포했다, 이는 러시아가 촉발했다는 뜻이다!". "사실이 아니다!" 러시아의 "동맹"들이 외친다. "러시아 정부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세르비아에 요구한 최후통첩에 대응해 동원령을 선포한 것이다. 오스트리아가 촉발한 것이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에 겨냥한다, 영국을 등에 두고 말이다. 주황색, 흰색, 붉은색, 푸른색, 회색이나 노란색 정부의 이 전쟁에 대한 서적들, 편지, 전보, 문서(명령서)들 중 아무거나 보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어떻게 최근 수십 여년간 중국, 페르시아, 터키, 아프리카의 토지, 등등을 약탈하기 위해 경쟁했던 강대국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지를. 그렇다면 하나가 확실하게 될 것이다, 여러 달 동안, 심지어 여러 해 동안 전쟁 전 이 모든 나라들의 정부가 서로 선수치기 위해 분투하며, 외교 협상을 하면서도 몰래 전쟁을 준비했는지 말이다. 그들은 절친인 척 굴면서도, 사실은 영국인은 독일인을, 독일인은 러시아인을, 러시아인은 오스트리아인을 선수치고, 능수능란함을 보이기 위해 열중했고, 그러면서, 각국은 각국의 인민들을 속였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수년간 많은 양의 국부를 준비했다. 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재정 자원들은 어디에 쓰였을까?, 학교에?, 병원에?, 노동 보험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값싼 주택에? 도로나 도로 개선에? 인민들의 다양한 필요에?, 이런 일에는 하나도 쓰이지 않았다!

국부는 군비로, 독일과 러시아, 영국과 벨기에가 동시에 만든 피버린내나는 싸움 준비를 위해 쓰였다. 이제 그들은 고아인 척한다!. 인민들, 정치적 의식이 있는 노동자들은 전쟁 전에도 그 국부가 어디로 사용되는지 잘 알았다, 세금이 차르들과 카이저, 영국과 프랑스의 자본가들이 해군과 기관총을 짓기 위해 거둬졌다는 것 말이다... 인민들은 러시아에서 거둬진 돈의 반이 이 "건설가"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왜 우리는 누가 전쟁을 준비했는지 잊어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독일의 노동자와 농민을 죄인이라 생각해야 하나?, 우리의 쓸모없고 이기적인 정부가 아니라 말이다. 아니다! 우리는 죄인을 찾으려면, 반드시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모든 교전국의 정부가 동등하게 현재의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말해야 한다. 전쟁의 책임은 자본가들, 은행가들, 지주들 그리고 그들의 후원자들이자 벗들인 차르들, 왕들, 카이저들과 그들의 장관들과 외교관들과 함께 있다. 그들은 모두 범죄조직을 구성한다!. 이것은 그들이 감독하는 인민들의 이익이 아니다!, 그들의 이익이다. 전쟁은 그들의 주머니만 채우지 인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 피 튀기는 재앙을 그들의 "외교 정책"과 같이 가져왔다. 전쟁터에 나가 죽는 인민들에게는, 지배자들 스스로 배신해버린 "조국을 수호하라"라는 말은 재앙을 불러왔다. "조국의 영광을 위해 죽어라!", 모든 부당함과 모욕과 수치를 잊고... 전쟁 전부터 정부의 정책에서 어떤 좋은 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도 잊어야 하고... 장교가 사병을 구타했을 때 분개해 하던 것도 잊어야 하며... 자기 나라에서 인민들의 권리가 부재한 것을 저주했던 것도 잊어야 한다... 지금은 전쟁이다!... 어제 만하더라도 누군가 압제자인 공장주가 그대의 "형제"라고, 그리고 그대처럼 궁핍한 독일 노동자들이 "최악의 적"이라고 말했다면 그대는 비웃었을 것이다. 어제만 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이 지주, 공장주나 부유한 사장들을 위해 삶을 희생해야 한다 당연하듯이 말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전쟁통이다!, 당신은 당신처럼 불운한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적"을 총검으로 찌르고, 칼로 베고 불구로 만든다... 당신은 공통의 적인 백만장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다른 나라의 동지들을 죽인다. 이것들은 세계대전의 학살극의 진정한 책임이 있는 자들, 자본가들과 자본가 계급정부, 자본의 하인과 친구인 자들의 의지이다!

"조국이 위협에 처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 나라가 공격 당했다면, 자기 조국이 위협에 처했다면 결국 싸움을 거절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조국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던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히, 양심적으로 물어보자. 노동자가 대체 어떤 조국이 있다는 말인가?, 박탈당한 자들에게 어떤 조국이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조국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왜 매년 외국 땅으로의 이민 물결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왜 박탈당한 자들과 실업자들이 고향을 두고 떠나며 아마 이 외국땅은 모국보다 더 나은 계모국일수 있다 믿고 희망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러시아에는 수십만의 굶주리고 돈 없는 "이민자"들이 왜 있는건인가?. 장군은 조국이 있다, 지주도 그렇고, 무역상, 공장주 등 지갑이 두툼한 사람들은 다 조국이 있다. 불룩한 지갑을 가진 부유한 자들에게는 조국은 권리와 특권을 주고 정부 당국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 신경을 써준다. 그러나, "조국"이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러시아인이든, 프랑스인이든, 독일인이든 말이다. 매일 먹을 빵을 위한 분투, 가난과 권리의 부재에 대한 분투, 주인과 지주 그리고 임대주의 억압, 모욕, 슬픔, 질병, 수치심... 감옥도 드물 지는 아니다! 러시아에서는 강제노역형, 추방 이것이 조국이 조국의 부를 만들고, 조국의 군사적 명예를 목숨을 걸어 얻는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모국은 어머니가 아니라 외붓 어머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어쩌면 우리 어머니가 그녀의 땅을 자신들의 이마의 땀으로 적시는 충성스러운 자식들인 우리를 만족시키지는 않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라를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의 인민들을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부들의 신앙을 다른 종교 신념을 가진 적들로부터 지킬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전이다, 모든 유럽 강대국들 사이의 전쟁이다, 다른 인종이나 신앙을 가진 적들과 전쟁하는 것인가? 좀더 잘 살펴보자. 누가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 정교회가 가톨릭을 상대로인가 가톨릭이 루터교를 상대하는 것인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을 상대하는 것인가?. 아니다!, 이 전쟁은 모두를 섞어 놓았다. 러시아 정교회 신자가 불가리아 정교회 신자를 쏘고, 프랑스 가톨릭 신자가 독일 가톨릭 신자를 죽이고, 무슬림은 기독교인을 도와 형제인 같은 무슬림을 겨냥다, 유대인은 유대인을 죽이고, 폴란드인은 폴란드인을 죽인다...

이 전쟁은 다른 신앙의 인민들 사이에서, 다른 인종과 신앙의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인종과 다른 풍습의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언어와 전통 사이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국가들, 즉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에 벌어진 것이다. 각각의 강대국들은 한 민족 이상 더, 이웃 국가에서 땅 한 조각 이상 썩 더 차지했다...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종족들과 민족들이 있는가!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다, 독일도 뒤쳐지지 않는다. 독일도 폴란드 한 조각을 차지했고, 홀스타인을 덴마크에서 빼앗았으며, 프랑스에서 알자스 지방을 얻었다. 그리고 "바다의 지배자?"라는 영국은 얼마나 많은 인민들을, 인도인과 흑인들, 호주인과 태평양인들을 제국주의 통치하에 두고 있는가?... 강대국들은 자기 주변에 경계를 그었고, 가장 다양한 인종들과 민족들을 "경계"로 물고서는 공표했다. "이게 너의 조국이다, 평화 시에 우리의 법에 복종하고, 전쟁 시에는 너는 우리가 너에게 강요한 이 조국을 위해

전쟁에 나가 죽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서로 전쟁 중인 “강대국”들은 각자 다 많은 인민들과 민족들의 압제자이다. 러시아는 유대인, 우크라이나인, 폴란드인, 핀란드인 등 많은 민족들을 억압한다. 독일은 폴란드인, 덴마크인 등을 억압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수억, 수천만의 식민지인들을 억압한다. 전쟁은 인민들을 위한 자유를 위해서나 한 민족의 언어를 위한 권리를 위해서나 노동계급에 득이 되는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벌어진 게 아니다. 이 전쟁은 최대한 많이 외국인들을 억압하고, 최대한 많이 미래의 식민지들을 약탈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권리”를 위해 벌어지는 것이다. 이 전쟁은 약탈꾼들이 전리품을 나누기 위해 벌어진 것이다. 강대국에 속하여,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 하나의 신앙의 인민들이 서로 죽이고 불구로 만들고, 땅을 짓밟는 그로테스크한 모습이 드러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인이 오스트리아의 우크라이나 농민에게 총을 겨누며, 러시아의 폴란드인 노동자가 독일의 폴란드인 노동자에게 기관총을 겨눈다... 45년 전, 알자스인들은 “아름다운 프랑스”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지금 그들은 독일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 아래서 “조국”을 지킨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연합국”들이 승리하면 다음 전쟁에서 알자스인들은 프랑스 “조국”을 위해 죽을 지도!

그리고 만약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에서 데려온, 군인들, 아프리카인과 인도인을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어떤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인가? 그들의 조국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다, 강대국들이 불과 검은색으로 복속 시켰기에 그런 것인가? 그들은 더 이상 조국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억압하는 민족의 부르주아들의 영광을 위해 죽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 국가에 정복당하고 복속 당해 조국이 없는 민족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러시아, 독일, 그리고 영국의 “진정한 아들”들도 “평민의 자식”들이라면 마찬가지다. 수천만이 고용된 노예로서 하루 종일 한줌의 자본가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조국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수천만의 노동자들이 잃을 것이 그들의 사슬밖에 없는 조국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인민들이 조국의 업무를 직접 보거나, 법을 제정하거나, 국가의 부와 예산을 감독하지 못하고, 한줌의 주인들과 부유한 착취자들이 이를 하는 조국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자기의 나라를 지키고 죽기 전에, 외부의 독일인 적들을 향해 진격하는 것보다, 내부의 적들을 상대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위험하고 이기적인 정책으로 인민들을 학살당하게 만든 러시아의 모든 폭군들과 압제자들을 쫓아내는 것 말이다. 독일인들은 차르정에서 러시아인들을 해방시키는 것보다 그들의 카이저와 자본가들과 지주들을 청산했으면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프랑스인들은 고국에 가까운 적들의 프랑스땅을 청산하는 것이, 독일인들에게 대포를 겨누는 거보다 현명하지 않을까?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조국”을 방어하며, 자신들의 언어를 외세의 억압에서 지키고 자유를 봉건영주와 차르들에게서 지켰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에서는 인민들이 귀족, 봉건 지주와 자본가에 의해 억압받는 동안, 자본가 계급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나라에서조차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다. 전 세계의 자본가들은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약탈하고 억압하는 연합을 만든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을 적대하게 만든다. 자본가들은 전리품을 나누고, 노동자들을 분열로서 약화시키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 그렇기에 이 전쟁이 자유와 조국을 지키는 것이 라 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서 노동계급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 한가지 길이 있다. 모든 나라들의 노동자들 사이의 합의와, 자본가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통된 투쟁이 사회주의 사회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다.

(part 3에서 계속)